

과학기술 출판이 설 땅

김재관

과학 저널리스트·월간 《자동차 생활》 발행인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경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초, 뛰는 듯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기어가는 느낌인 인지(人智) 적응의 차이를 경고한 핵물리학자가 있었다. 그는 과학과 인지의 발달에 각각 '지수함수적'이란 말과 '직선적(리니어)'이란 표현을 쓰면서, 냉전이 핵전쟁으로 번져 인류 모두가 화를 입을 위험을 경고했다.

과학자의 으뜸가는 임무가 연구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는 과학자들이 글과 강연으로, 또는 단행본 출간으로 인류의 운명이 걸린 핵미사일의 실체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을 상대로 한 과학기술의 계몽활동이 원래는 과학자들의 세번째 또는 네번째 임무이지만, 양심적인 과학자라면 이 어려운 시점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일반에게 알리는 일을 무엇보다도 앞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거창하고 화급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주위에는 과학지식의 올바른 전달보급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과제들이 많다. 원자력 발전, 핵폐기물 처리, 공해, 식품과 건강, 대체연료 개발 등 서둘러 해결을 보아야 할 일들이다. 모두 국민의 바른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들이다.

서기 2000년을 몇해 앞두고 요즘에는 고도정보화시대, 멀티미디어시대라는 말로 대신되는 21세기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손에 들고 다닐만큼 작아진 장비 하나에 컴퓨터, 텔레비전, 전화와 팩시밀리 등 여러 기능을 묶어 널리 이용한다는 생각이다. 이제는 국민학교 어린이들까지 매만지게 된 개인용 컴퓨터와 반도체의 성능이 더욱 좋아지고 값이 싸질 것을 전제로 한 편리한 도구이고, 사람들은 이에 의지하는 세상이 된다는 생각이다.

정보화사회 또는 멀티미디어의 세계는 미국이 앞장서고 있는 정보고속도로로 알 수 있듯이 21세기에 그 나라가 앞선 나라가 되는가, 또는 뒤진 나라가 되느냐의 갈림길이 된다. 그런데도 워낙 앞선 생각이고 관계되는 범위가 넓어 전문가들 외에는 참뜻과 큰 영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국민의 과학지식이 모자라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나 전문용어가 나오면 피하려는 데 큰 원인이 있다. 실제로 아무도 반대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간결하게 멀티미디어를 설명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와 그 발달을 기초로 한 컴퓨터의 진화와 활용, 광섬유에 대한 기초지식만 갖고 있으면 멀티미디어가 무엇을 뜻하고, 그것이 다음 세기에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하게 만들 것인가를 웬만큼 알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 양식있는 출판사와 뜻있는 과학저술인의 설 땅이 있고 한편으로는 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 과학도서는 전파과학사와 범양사 등의 선구적인 노력에 이어 요즘에는 이 분야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크게 성공한 경우는 없다. 출판사는 과학도서가 안팔리니 획기적인 투자를 할 수 없고, 필자는 보잘것 없는 고료로 의욕을 잃고, 독자 입장에서는 양서가 없다고 푸념할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필자, 독자가 서로 책임을 남에게 떠밀 수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온 것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일차적으로 출판사가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0만 단위로 팔리는 책도 있는 출판계이니, 훌륭한 과학도서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물론 국민 모두를 위한 과학대중화에 앞장서겠다는 뜻있는 부차 출판사가 나와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술에 전념하겠다는 과학기술자들도 잇달아 나와, 함께 나라의 앞날을 밝고 튼튼하게 설계하는 데서 큰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표지 인터뷰 2 **우리 한문학 유산 일궈내는 '지조있는 선비'**
'한국의 한시' '고전산책' 시리즈 펴내는 허경진 교수

초점 4 **베스트셀러에도 '지방자치시대'**
호남·영남·충청·제주 등 지역따라 특색

출판계 소식 5 **'나남신서' 400호 출판기념회 성황·외**

특집/과학의 시대, 과학출판 6 **"권위있는 과학전문 출판사를 바란다"**—임경순

7 **과학대중화를 이끄는 '사이언스 라이터'**

8 **입을거리 풍성한 교양과학서들**

90년대 들어 본격 출간... 특정 분야 치중 문제점도

9 **출판사마다 다양한 과학기획 준비**

10 **과학전문 출판사들의 지적도가 달라진다**
전파과학사·범양사 외에 종합출판사도 대거 참여

11 **통계로 읽는 순수과학 출판**

12 **어린이 책에도 과학의 물결 출렁**

연재 13 **세계는 지금 '통신 출판'의 시대**
정보통신망으로 제작·배포·판매까지

시간 읽기 14 **이종관 <소피아를 사랑한 스파이>**—조형준

시간 다이제스트 15 **꾸리에 대담 <21세기를 여는 상상력의 창조자들>**

문학 시평 16 **한국적인 해양문학의 새로운 발견**—조규익

에세이 17 **내 영혼을 흔든 마음의 서가**—장석남

세미나 지상중계 18 **멀티미디어 관련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정상조

19 **저작권, 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드라이에

기획 시리즈 20 **1 대중문화시대의 '문화읽기'**—이중환

책 뒤에 선 사람들 21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서평 22 **강진호 외 <박태원 소설연구>**—김경수

카울바하 <윤리학과 메타윤리학>—김영철

신용하 <21세기 한국과 최선진국 발전전략>—강철규

이관수 외 <사회속의 과학, 과학 속의 사회>—김동원

이상돈 <지구촌 환경보호와 한국의 환경정책>—이정전

다이어 <스타 - 이미지와 기호>—김영진

종합서평 26 **벗어나기와 드러내기의 독특한 양상**—신덕룡

이 책 그 사람 28 **<노래를 지키는 사람들>** 펴낸 고혜경씨

<이미지에게 말걸기> 펴낸 백지숙씨

<미소 한잔 눈물 두스푼> 펴낸 허수경씨

<북한의 지리여행> 펴낸 윤웅씨

세계의 출판 30 **멋서점이 강타한 존 그리삼의 새 소설·외**

32 **어린이 책 / 34 신간안내 / 44 새로운 책**